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7호 현대불교
2008년 2월 20일(음력 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까리 까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죄전에 무죄가 모이고, 아니 싸전에 가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낫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동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말아야. 안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닦쳐오는 대로 놓고, 닦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팔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팔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율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共生)할 수가 있고 공용(公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 그게 뭐 걱정이 있습니까? 응? 무쇠도 녹을 겁니다. 아야, 스스로 붉어 와서, 스스로 붉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꺾을 필요가 없고 꺾어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겸손하고 마음은 깨끗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야만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로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로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놓으면 무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 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큼, 한 명의 한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 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력하다 보면 다 없 어지니, 닦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經)이나 뭐를 보지 말고 의례 의식을 지키지 말고 제율(戒律)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시주할 돈이 없는데 빚을 내다가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분수를 지켜서 해라 이겁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력하면 된다'라 하고 남의 말 생각하듯, 남의 말을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저서 생산이 돼서 나와,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밀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면 후세 오백 년 후나 천 년 후나 부처님을 찾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얼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배우는 이때나 부처님이 계신 때나, 오백 년 후나 삼천 년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한 번 읽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보살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때는 “나는 꿈을 이렇게 꿴데...” 그것도 공부거든. 생시도 꿈이야, 꿈도 꿈이야.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야. 이걸 까 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래에

26면으로 계속

I N V I T A T I O N

음악과 함께 하는 월간「불광」400호 발행 축하·나눔의 밤

항상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은덕으로 월간「불광」이 지령 4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간「불광」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계신 사부대중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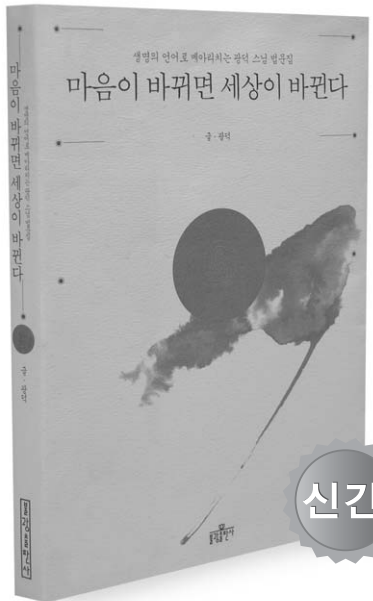
식순

- 인사말 _ 지홍스님
- 축하말씀 _ 지관스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 축사 _ 명성스님 (가이이(가이)회장)
- 축사 _ 김희경 (중앙신도회 회장)
- 기본 좋은 300후원
- 축하공연(선무도, 노래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성녀, 장서익, 유기준, 이은영, 불광합창단)
- 축하 케익 및 다과

- 일시 _ 2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 주최 _ 월간「불광」, 불광출판사
- 문의 _ Tel. 02) 420 - 3200 Fax. 02) 420 - 3400

월간「불광」구독료 _ 02-420-3200 • 1년 구독료 38,000원 • 2년 구독료 70,000원 • 3년 구독료 100,000원

생명의 언어로 메아리치는 광덕 스님 법문집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신간 280쪽, 값 12,000원

마음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게 하는 종자이며 힘입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한 것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창조력을 가지며 신념을 가진 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이어갑니다. 젊고 활기찬 아름다운 꿈을 그림시다. 우리 생명의 위대한 힘이 우리의 육체도 환경도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 본문 중에서

광덕 스님 일만 9주기를 기해 발행(2008. 2. 18)된 이 법문집은 스님의 법문 중에서 미출간된 주옥같은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까닭, 죽지 않는 법, 최상의 기도법, 미운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일체불이론다, 원인 없는 병은 없다 등등,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마음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 우리의 진실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 전화 02) 420-3200 | 팩스 02) 420-3400 | http://www.bulgwang.or.kr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광덕 스님 책들

- 01 경전강의서 _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공강의 02 경전법에서 _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만용경 부모은중경 관음경 지장경 03 법어집 _ 메아리치는 공짜기 반법과 착하지 않는 자
- 04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_ 불- 여불- 가을- 겨울-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05 삶의 지혜를 얻는 법집 _ 행복의 법칙 빛의 목소리 06 우리문답집 _ 생의 의문에서 그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 07 불교의식집 _ 우리말 범회요전 우리말 축원문 연회하서문 불좌 수행일과요전 지장기도집 08 선어록법어서 _ 육조단경 선관책전